

# 업종 입지제한 완화로, 1,000억원 투자 유치와 3,000여명 일자리 창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스미토모세이가 공장은 현재  
70%이상의 공정을 올리며 공사가 한창이다

대통령이 칭찬한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꼽히!

“여수시 공무원들처럼,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제하고 외자유치와 일자리를  
만들어진 여수시를 모범 행정 사례로 들었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약 1,000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여수시는 공무원들의 뚜렷한 사명의식으로 전력을 다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2016년 3월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일본 대표 화학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전담팀 구성



스미토모세이카(주)  
임원방문

2014년 2월 일본의 대표적 정밀화학 업체인 ‘스미토모세이카’ 관계자들이  
여수시를 방문했다. 원료공급사인 LG화학 여수공장과 가까운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서였다.

‘스미토모세이카’가 일화용 기저귀의 주재료인 고흡수성 수지를 생산하는  
해외 공장 후보지를 검토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전남도와 여수시는  
전담팀을 꾸려, 애로사항 청취, 입지 선정 협의,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교섭을 진행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2월 20일 스미토모세이카는 여수산업 연관 단지  
중흥지구에 4만2883㎡ 규모의 공장부지내에 1,000억원을 투자해  
화학제품업종인 ‘고흡수성수지 제조공장’을 설립하겠다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한다.

투자 유치의 걸림돌, 산단내 업종 제한 2개월만에 용도변경

하지만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상 조립금속 및 장비제조업종 산업단지로서 석유화학업종은 입지 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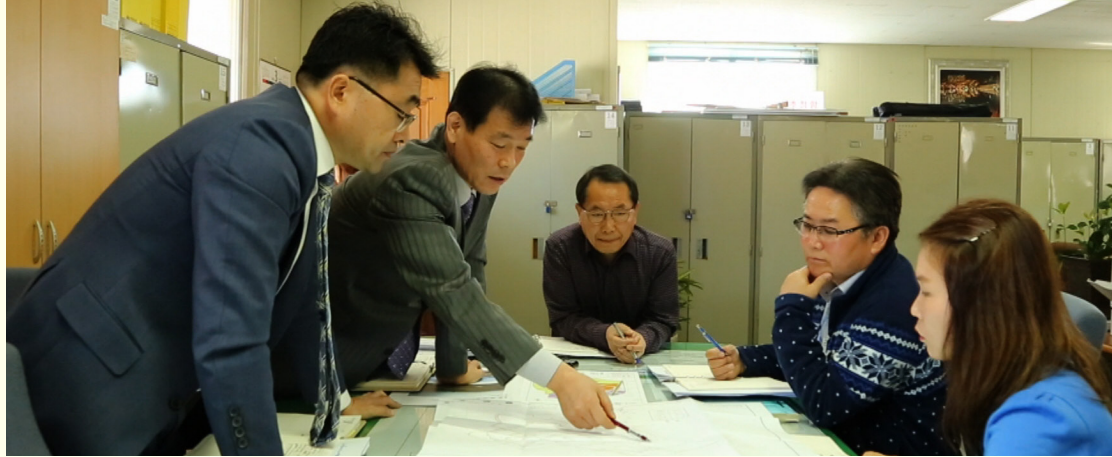
“일본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힌 지 4~5개월이 지나도록 투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최종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엇인가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를 담당했던 박형욱 여수시 도시계획팀장은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을 말했다.

여수시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석유화학업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아울러

스미토모세이카의 투자계획 일정에 맞추어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해야만 했다.

이에 영산강환경관리청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를 설득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는 중흥단지 개발이 완공시점에 와있다는 것과 계획을 변경했을 때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걱정했다.



용도변경을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중인 여수시 공무원들

여수시는 국토부를 직접 찾아가 중흥지구와 접한 도로(시도1호선, 폭30m) 건너편 여수국가산단에 이미  
석유화학업종의 공장이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입주업종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해당기업은 국내 투자계획을  
철회하고 중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상황도 덧붙여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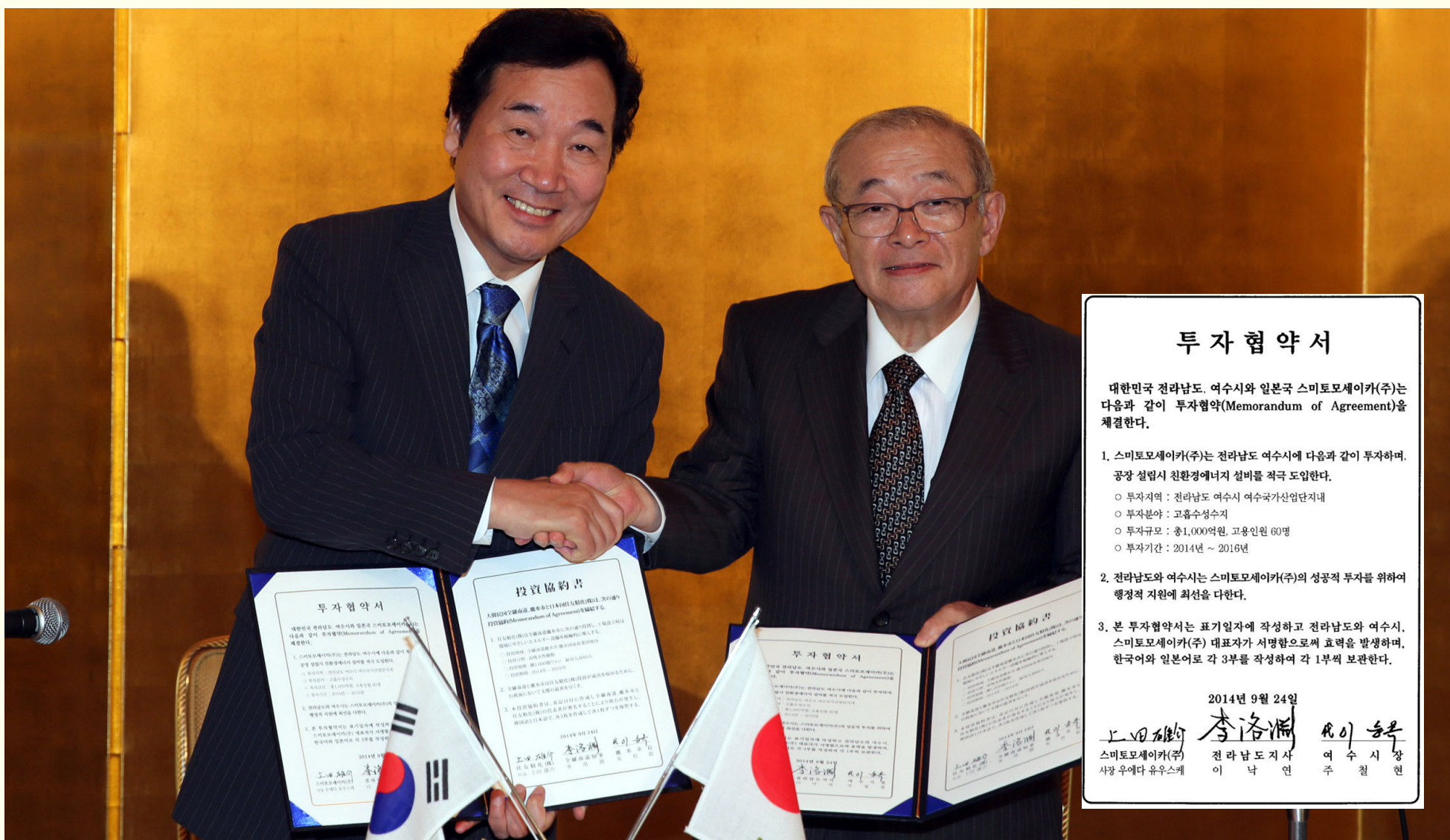
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대한 집단민원도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득했다. 실제 9월에는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들과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투자유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국토부도 여수시가 제출한 지역주민 동의서를 보고 2개월 만에 화학제품 업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개발계획을 변경해도 투자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스미토모세이카의 투자 일정대로 10월에 착공하려면  
실시설계 변경이 시급했다. 공장예정지의 경사도가 심해 사전에 정지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관련 법을 뒤져 찾아 준공 전이라도 산업입지법 규정에 따라 조성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투자 기업에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안내했고, 익산관리청으로부터 중흥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스미토모세이카 측은 2015년 2월 전격 분양을 체결했다.



2014.9.24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일본 뉴오타니 호텔에서  
스미토모세이카 우에다유스케 사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스미토모세이카측의 여수시에  
총 1,000억원 규모 투자 확정,  
총 3,060명의 고용창출 예상



개선전



• 여수시 중흥연관단지는 산업단지개발계획상 화합물 및  
화학업종에 대해 입지 제한.



개선후



여수시가 지역주민 등의 동의를 얻어 국토부의 산단개발계획  
변경 승인 받음.  
화합물 및 화학업종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단개발계획 변경 승인  
(‘14.10월), 실시계획변경 승인(‘15.2월)



## Interview

박형욱 여수시 도시계획과 팀장



“당시 스미토모세이카는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분양계약 체결 후  
토목공사를 착수해 2015년 5월경에는 공장가동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만약 투자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 투자계획을 모두 중단하는  
것도 검토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모두가 합심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유치가 가능했습니다.”

“항후 스미토모세이카는 공장 준공 후 여수시민 우선채용과 사회공헌사업 및  
연구개발(R&D)센터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수시는 규제로 투자를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관련 부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여수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